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4
vol. 53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4년 겨울호

시론

- 3 만나지 말자며 만나고 싶은
이제는 그리운 너, 동문
이강국(38회)

동문회장 인사말

- 5 돌담에 올려진 성스러운 돌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정상수(24회)

동문회소식

- 6 화보
- 11 역대 최대 참가자의 위용, 굿샷!
202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
구영준(41회)
- 14 폭우도 날려버린 동문들의 합성
제5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방근철(39회)
- 18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재학생을 위한
진로콘서트
김태수(58회)
- 20 개교 70주년 계기로 최고 약대의 위치로
비상하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7차 정기총회

약학대학70주년기념식

- 23 개교 7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동기회소식

- 26 우정과 배려의 약속
제17회 졸업 50주년 기념식
전상훈(17회)
- 28 담힌 기억 그리고 열린 기억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
37회 동기회
김학선(37회)

문학산책

- 28 로마 카타콤에서 카푸치노를 배우다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커피, 카푸치노
박희용(23회)

특별기고

- 37 장학금 기탁의 작은 날개짓이
'나비효과'가 되기를!
뉴욕 장순걸(11회) 동문
장학기금 10,000불 쾌척
황공용(20회)

추모사

- 39 월파(月坡) 한덕용(韓德龍) 교수님을
고이 떠나보내며...
김창중(11회)

학교소식

- 41 · 김홍진(22회) 명예교수, 국내 최초 9가
HPV 백신 개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약학대학 김지산 · 한리-AI대학원
장준보 학생, 신약개발 AI 대회 대상
(과기정통부장관상) 수상
-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진로탐색 멘토링
성과보고회 열려

43 약학대학 발전기금

44 회비내역

46 장학기금

47 만평

48 편집후기

만나지 말자며 만나고 싶은 이제는 그리운 너, 동문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 나태주, 그리움

동문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기수는 한참 아래일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그리움이라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니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가 나오네요.



이 강 국(38회)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을 정도의 배짱은 없었지만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어 소심한 반항을 하며 보낸 대학 생활,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선후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지금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든

든한 다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늘 그렇듯 조금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 왔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IMF, 약 사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온 의약분업, 그리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 등등 좋은 기억도 많았고 끔찍했던 기억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주변의 도움과 시간이 지나 충격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다들 그렇듯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처럼 졸업 30년이 지나 기분 좋았던 시절과 그때는 힘들고 괴로웠던 많은 기억들도 지금은 거르고 걸러져 좋은 기억들과 살며시 미소 짓게 하는 추억들로 남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억과 추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 약사라는 같은 길을 바라보는 동문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동문이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학교나 기관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일한 사람들로써 서로의 경험과 연결고리를 공유하며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동문이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만나지 말자며 만나고 싶은 이제는 그리운 너였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운 너였으면 합니다.

청룡의 해를 열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어제 시작하는게 가장 좋았으나 오늘도 좋습니다. 내일은 늦어요.

돌탑에 올려진 성스러운 돌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올 봄에는 추억의 흑석동 중앙대 캠퍼스, 변화된 약학관도 둘러보시고 청룡상과 함께 행운을 얻어 가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중앙대 동문들의 시대,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함께하는 컨넥팅 동문회’의 슬로건으로 출발한 24대 동문회가 취임 2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는 선배님들이 그 동안 쌓아오신 위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1) 각 지역 동문회의 활성화와 동시에, 동문회 운영에 조그만کم이라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보자!
- 2)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신진 동문들을 규합하여 서로 돕는 컨넥팅 기회를 제공하자!
- 3)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희망과 자신감을 제공하자!

특히 한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중앙대 약대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동문, 재학생 그리고 교수님, 또한 대학교 및 재단 모두가 약대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중앙대 약대가 한국 약대 최고의 위치로 더욱 비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 돌탑에 올려진 돌은 길가의 흔해 빠진 돌과 달리 성스러운 돌입니다.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돌탑의 돌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본 동문회보가 잘 이어지도록 봉사 해주시는 편집위원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동문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수(24회)
동문회장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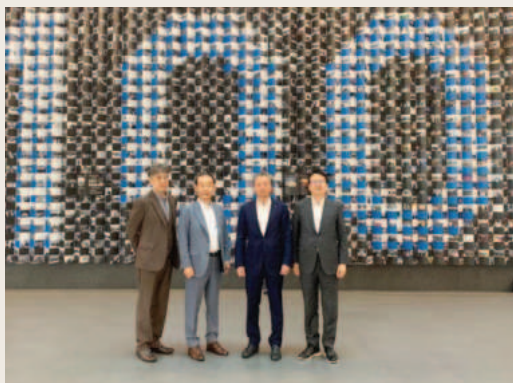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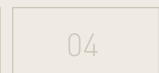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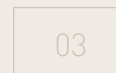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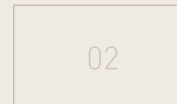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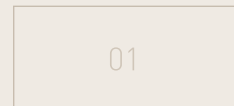


7월 22일_ 회장단상견례 및 초도이사회

8월 24일_ 진정주(38회) 동문 간담회

9월 10일_ 2023년도 골프대회

9월 16일_ 상임위원단회의



10월 13일_ 중양대학교 총동문회 2023년 중앙인의 날
진정주(38회) 동문 “자랑스런 중앙인 상” 수상

10월 24일_ 장순걸(11회)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

10월 26일_ 중양대학교 박태원 재단이사 간담회

11월 1일_ 2023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11월 5일_ 약대 개교 70주년 제5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만남의 날

11월 11일_ 청년위원회 재학생 대상 진로콘서트

12월 1일_ 약학대학 환경개선준비 회의

12월 1일_ 약학대학 2023년도 멘토링 성과보고회



01

02

03

04





12월 2일_ 여동문회 월례회 및 동문회장 상견례

12월 7일_ 7회 동기회 졸업 60주년 기념식

12월 19일_ 정상수 동문회장 약학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12월 19일_ 회장단회의 및 상임위원단 회의



01	02
03	
04	



1월 4일_ 감사수감

1월 4일_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의

1월 26일_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기념식

2월 3일_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품분석반 졸업생 환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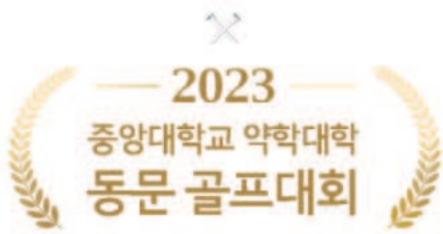


01 02

03

04





역대 최대 참가자의 위용, 굿샷!

구 영 준(41회)
동문골프대회
준비위원장



세계적인 명문 동문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체육대회에서 골프를 독립시켜 탄생된 '중양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대회'가 코로나 직후 개최된 2022년 이후 1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되어 대회를 준비했던 저로서는 막중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끼고 그만큼 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굿샷'을 외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좋은 날씨와 명품 코스를 선정하기 위해 정상수(24회)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임성호(36회) 총무님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가 무시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지만 어렵게 내린 결론은 '빛을 내서라도 친다'로 의견을 모았고, 9월 10일(일) 가을의 청명하고 멋진 날에 충청권에 있는 명문골프장인 히든벨리CC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라 참석자 수가 많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172명의 역대 최대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치러지게 되다 보니 조 편





성부터 상품 선정, 귀빈 초청 및 시상식 등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느라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명품 동문회 골프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정상수 회장님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작 골프 라운딩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행사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하신 임성호 총무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관계자분을 비롯한 현장에서 안내를 도와주신 약대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도 편성이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석하시는 귀빈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님들의 연령별, 지역별, 골프모임별, 단체전 선수들까지 안내해야 해서 행사 전날까지 작은 의견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행사 당일. 날씨는 살짝 더울 정도로 무척 좋았으며 로비에서부터 물 흐르듯 접수가 진행되어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는 애시당초 걱정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앙대 약대 동문 특유의 유쾌하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허인회(4회)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43개 팀 172명의 동문 가족들이 각자의 출발조를 확인하고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했는데, 정상수 회장님이 특별히 사진촬영 기사님을 섭외하여 각 조마다 별도의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해 주셔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운딩은 많은 팀 수를 고려하여 3개 코스에서 shotgun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동문님들의 뛰어난 실력에 여기저기서 '굿샷'이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즐겁고 행복한 라운딩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모두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진행팀들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집계된 점수를 바탕으로 시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베스트드레서에 선정되신 허인회 교수님을 시작으로 중간 중간 행운권 추첨을 더해 시상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3년도 중대동문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구영삼(28회) 동문님과 제가 골프를 치면서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68타(4언더)로 메달리스트를 차지하신 이강옥(26회) 동문님, 아깝게 69타(3언더)로 메달을 놓치신 조준상(33회) 동문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개 팀이 참가한 분회 팀 대결에서 우승하신 용인

202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골프대회 수상자

개인 시상내역

- 우승(신페리오) 구영삼(28회)
- 메달리스트 이강욱(26회)
- 준우승 김수배(21회)
- 준 메달리스트 조준상(33회)
- 니어상 김현식(28회)
- 장타상 남김광식(30회)
여권성원(45회)
- 행운상 임영식(15회)
- 다버디상 은형주(35회)
- 다파상 박수길(27회)
- 다보기상 최병원(30회)
- 으뜸상 김진(35회)
- 노력상 김창중(11회)
김영희(28회)
- 분발상 유완진(32회)
- 대박상 박상규 총장
신현국 총동문회장
김현태(20회) 약학정보원장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
(가장 멀리오신 동문) 오황영(22회) 메디팜제약국
3위 (신페리오) 박영달(27회)
베스트 드레서 허인회(4회)

단체전

동기회	우승	26회 동기회
	준우승	22회 동기회
	3위	33회 동기회
분회	우승	용인분회
	준우승	수원분회
	3위	안양분회
최다참가 동기회	공동우승	24회 동기회 28회 동기회
최다참가 분회		용인분회

행운상

행운상 1등 한일권(34회)



분회와 동기회팀 대결에서 우승하신 26회 동문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상수 동문회장님께서 특별히 최다참가 동기회와 분회에 대한 격려금(각 50만원)을 준비해 주셔서 12분이 참석한 24회 동기회와 14분이 참석한 용인분회가 시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 마지막에 격려금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옥의 티로 못내 아쉬웠지만,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회에서는 작은 실수도 없는 명품 골프대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중대약대 동문 골프대회에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대한약사회 최광훈(22회) 회장님과 약학정보원 김현태(20회) 원장님, 대한약사회 최두주(25회) 사무총장님, 경기도약사회 박영달(27회) 회장님, 유정사(10회) 고문님, 장재인(17회) 고문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박상규 총장님, 신현국 총동문회장님, 황광우(35회) 학장님, 멀리 제주에서 오신 오황영(22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끝까지 라운딩을 함께해 주신 허인회(4회) 교수님과 김창중(11회) 교수님을 비롯한 명예교수님들과 현직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개국가는 물론 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선후배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문선후배님들께 두루두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 인만큼 다음 골프대회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 많은 동문이 참석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폭우도 날려버린 동문들의 함성



제5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비야 와라,
그래도 간다.
너 만나러 간다.
”

2023년 11월 5일 늦가을,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기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사다마랄까, 기온은 평이하나 예기치 않게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회장단을 위시한 준비위원회는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할 지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어떤 악조건에서도 미룰 수 없는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체육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폭우가 와도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비옷, 캐노피, 테이블, 의자, 따뜻한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하루 종일 동문들이 혹시 모를 비를 피하면서도 행사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몽골텐트도 평소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비가 와도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까 등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몽골텐트를 이어서 연결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새벽 5시부터 천막을 펼치는데, 아니다라들까 그렇게 우려했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아~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방근철(39회)
체육위원장



그러나, 우리의 드라마에는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속속 나타나는 반가운 얼굴들, 바로 우리의 300여 동문들. 그래 올 사람은 결국 오는 것이야!
 단순히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어렵게 준비한 행사를 그르칠 수 없다는 어떤 사회적인 책무 비슷한 감정들이 우리 동문들 마음속에 뜨겁게 웅크리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후배,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어울려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이것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평범하지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만들어지는 동문들 사이의 소통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큰 자산이며 소중한 그 자체입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체육대회는 동문이라는 큰 나무의 작은 가지입니다. 학생, 교수, 졸업생의 끈끈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홍흥만(1회) 동기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상수(24회) 동문회장의 내빈소개 및 개회사,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의 축사, 박영달(27회)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의 격려사, 황광우(35회) 약대학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상수 동문회장은 “올해는 중앙대 약학대학 개교70주년이 되는 해로 1회동문부터 67~69회 재학생들까지 참여해서 더 특별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비가 오는 건 서로 더 가까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다”며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하나 되는 가을 체육대회는 중앙대 약학대학만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이다”라며 격려사를 마쳤습니다.



내빈으로는 임완호(6회), 유정사(10회), 서국진(13회), 장재인(17회), 김현태(20회), 권석형(23회) 고문, 김창중(11회), 조찬휘(15회), 손의동(22회), 이광섭(24회) 자문위원, 김수배(21회), 강희운(22회), 서동철(23회) 감사, 정명진(18회) 대약총회부회장, 김채영(28회) 여동문화회장, 이경옥(19회), 양덕숙(28회), 김희식(28회) 여동문화고문, 허인회(4회), 김홍진(22회), 최영욱(24회) 명예교수님께서 참석했습니다.

김태수(58회), 한주희(58회) 동문이 선수대표 선서를 하였고, 이어서 예정된 진행표에 따라 바둑, 윷놀이, 제기차기, 테니스, 족구, 생맥주 빨리마시기 등이 물흐르듯이 진행되었고, 언제나이듯 참여한 전 동문들이 모두 마지막 남은 정열을 쏟아내는 줄다리기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차호영 학생회장 및 재학생들과 서해준(57회) 청년약사회 임원들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이 흠뻑 젖어가면서도 내 일처럼 진행을 도와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들이 정교한 레고블록처럼 쌓여 결국에는 즐겁고도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 생맥주 빨리 마시기 2. 바둑 3. 화살던지기 4. 족구 5. 윷놀이 6. 제기차기 7. 줄다리기



종합우승은 34회 동기회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푸른구름회, 3위는 28회 동기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강자로 등극한 34회 동기회는 강철같은 체력을 바탕으로 모든 종목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명불허전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끈끈한 동기애가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폐회식 후 따로 시간을 내어 모교로 이동, 약학대학 3층 대강당에서 황광우 학장이 '약학대학 환경개선사업'에 관해 소상하게 브리핑을 진행하여 참석한 동문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학교 사랑, 후배 사랑의 결실로 맺어질 것임을 기대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를 맞아가며 '제51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에 참여해 주신 동문 선배님, 후배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목별 수상내역

- 종합우승 : 1위 34회, 2위 푸른구름회, 3위 28회
- 바둑 : 1위 정찬현, 2위 김상래, 3위 위혜주, 이현희
- 윗놀이 : 1위 28회, 2위 19회, 3위 38회
- 테니스 : 1위 문태섭, 2위 김혜진, 3위 정선중
- 제기차기 : 1위 51회, 2위 36회, 3위 39회
- 족구 : 1위 34회, 2위 안산, 3위 35회
- 생맥주 빨리마시기 : 1위 34회, 2위 푸른구름회, 3위 69회 연합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재학생들을 위한 진로콘서트



약사들의 현실적인 활동 및 각 진로별 진입시 고려사항 특강

2023년 11월 11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10년 미만의 30대 졸업생들이 각 파트별(공직, 회사, 병원, 약국) 진로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동문회에서 행사비용을 일체 지원해 주셔서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행사에 대한 기획 및 준비는 동문회 청년위원회(57기 서해준, 58기 김태수, 62기 김준하)와 학생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장소 섭외 및 강연에 대한 수요조사 등은 현재 중앙대 약대 학생회 집행부(오름)의 도움을 받았고, 약 150명의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각 진로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자로는 공직 파트 59기 양대형(보건복지부 5급 사무관), 회사 파트 57기 서해준(아스트라제네카), 62기 김준하(파마리서치), 병원 파트 58기 한주희(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약국 파트 58기 김태수(금천구 독산중앙약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학부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특히 졸업 후 5~10년차 약사들의 현실적인 활동 및 각 진로별 진입시 고려할 점들을 알려주기 위해 30대 약사들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 태 수(58회)
청년위원회



강연은 2시에 시작하여 6시 반까지 각 파트별로 1시간씩(40분 강연/15분 질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나, 연자분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알찬 강연자료를 준비해 와주셔서 각 직군에서의 약사들의 역할 및 느끼는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강연 대상자들이 중앙대 약대 직속 후배들인 만큼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속 깊은 이야기들과 함께 각 직군별 장단점을 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의 수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앙대 약대로서의 자부심을 느낄만한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동문회 청년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학생들과 교감하여 다른 학교들에선 흉내 낼 수 없는, 중앙대 약대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다 5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의 특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학생들이 참석해서 강연을 들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이 행사에 대한 피드백 또한 수십 개를 받았습니다(후기 설문조사 내용은 정리하여 동문회 상임위에 보고).

관련 후기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할 솔직한 내용들을 중앙대 후배라는 이유 하나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너무나 알찬 내용을 졸업반이 아닌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앙대 재학생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졸업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아지고, 재학생들이 그들의 눈으로 사회 곳곳에 진출한 우리 동문들과 접하고 그 위상을 체험할 때마다 '왜 중앙대 약대가 전국 최고의 약대인지'에 대한 확신과 중앙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회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 활동 및 행사를 통해 동문회의 일원으로 중앙대 약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70주년 계기로 최고 약대의 위치로 비상하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7차 정기총회



2024년 1월 26일 약학대학 3층 대강당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7차(2024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관례상 6월부터 시작되던 기존 회계연도를 정초로 조정함에 따라 통상 5월에 개최되던 정기총회가 1월로 당겨진 것이다. 관행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현 집행부의 결단이 돋보이는 조치였다.

코로나 사태의 엄중했던 통제기를 지나 다행히 학교 외부에서나마 조심스럽게 모임을 가져오다 새로 문을 연 11층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모처럼 학내에서 진행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반가웠다.



정상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게, 함께하는 커넥팅 동문회!」의 슬로건으로 출발한 24대 동문회가 취임 2년차를 맞았다. 이를 위해 직역 동문회의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신진 동문 규합,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희망과 자신감 제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해 왔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이런 모든 노력은 오직 화합과 통합의 바탕에서 가능하며, 올해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중앙대 약대가 한국 약대 최고의 위치로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항상 동문 사랑의 마음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대학교 박상규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대학교를 대표하는 학문단위로 자리매김한 약학대학의 위상을 확인하며, 그간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약학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역사와 전통, 끈끈한 구성원들 간의 정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동문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늘 모교에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총동문회 신현국 동문회장은 “중앙대학교가 195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되며 약학과가 개설된 이래 70년의 역사 속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수준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보건의로 전문인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총동문회가 표창하는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에 2022년 최광훈 동문, 2023년 진정주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 약학대학의 빛나는 영광의 역사를 증명한다”고 치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우리 동문들은 개국가를 비롯해 공직, 제약, 병원 및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약업계 모든 곳에서 중추적으로 활약하며 약사사회의 역사와 약사직능의 미래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회원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기치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문들이 대한약사회의 이런 행보를 응원해주고 약사사회의 현안에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광우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건립된 102관 약학대학 및 R&D 센터도 벌써 10년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동문회 장학금도 매 학기 4천만원 넘게 후배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6년제 약학교육의 시작점을 맞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약학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겠다.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총동창회장 공로패	학장 공로패	동문회장 공로패
 <p>권석형(23회) ㈜노바렉스 대표 김희식(28회) 그린팜약국</p>	 <p>최병원(30회) 최병원약국 박종혁(38회)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진정주(38회) 진정주약국</p>	 <p>임무호(24회) 경북김주요양병원 대표 최명수(41회) 아산메디칼약국</p>	 <p>전상훈(17회) 한독약국 김흥규(27회) 다나약국 안의성(37회) 건강드림약국</p>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3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핵심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이어 동문회 회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임기 1년 이내에 차기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김정수(26회) 하이텍팜 회장이 선임되었음을 공표했다. 김정수 차기회장은 선임을 받아들이는 인사를 통해 기간 동문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향후 보다 적극적인 회무를 통해 동문회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하며 동문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다.

참석한 내외빈들로는 박상규 총장, 백준기 교학부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신현국 총동문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고, 정상수(24회) 약대 동문회장,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 박영달(27회) 경기도 약사회장을 비롯하여 최고 원로이신 홍흥만(1회) 동기회장, 유정사(10회), 서국진(13회), 김현태(20회), 권석형(23회) 고문, 김수배(21회), 강희윤(22회), 서동철(23회)감사, 조찬휘(15회), 이광섭(24회) 자문위원, 김채영(28회) 여동문회장, 이경옥(19회), 양덕숙(28회), 김희식(28회) 여동문회 고문, 조의환(8회) 삼진제약 회장, 김정수(26회) 하이텍팜 대표, 류형준(29회) 예스킨 대표, 김정태(33회) 코아팜대표, 김만석(43회) 엘라스틱랩 대표 등 많은 동문들이, 학교 측에서는 황광우(35회) 학장을 필두로 허인회(4회), 김창중(11회), 손의동(22회), 최영욱(24회) 명예교수와 함께 다수의 현직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개교 7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

2024년 1월 26일 모교 102관 3층 대강당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다. 행사는 1부 70주년 기념 학술행사와 2부 70주년 기념 동문초청 행사로 진행되었다.

1부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70주년 기념 행사의 1부 학술행사는 민혜영 교수(대학원 약학과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현재 중앙대 약학대학의 주요 연구 사업에 대한 소개로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SRC), 교육부 BK21 사업단,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을 주도하는 연구책임자들의 사업 소개가 있었고, 동문회에서 약학대학과 동문회간 협력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로 선도연구센터(SRC) 센터장인 오경수 교수가 ‘메타리셉토름 제어 연구센터’의 연구비 수주부터 센터 설립 및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센터는 2015년부터 7년간 8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후속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39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는 ‘BK21 글로벌 혁신신약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인 민경훈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BK21 사업단은 오경택 교수가 단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질병과 관련된 타깃 발굴 및 기전에 기반한 신물질 개발 및 제품화 연구를 진행하며 우수한 석박사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발표는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약학연구소 소장 한상범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약학연구소는 2021년에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9년간 70억 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히스톤조절 단백질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의약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네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의 연구책임자이며 대학원 규제약학과 학과장인 나동희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우리 대학은 2022년에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2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의약품 제조 및 품질평가 분야의 규제과학 전공 석박사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 대학원 규제약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문회를 대표하여 김정태 동문(33회, 코아팜바이오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었다. 약학대학과 동문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문회와의 협력을 통한 약학대학의 글로벌 우수대학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2부 70주년 기념 동문초청행사

2부 동문초청 행사는 독특하게 현직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령아(49회) 약사의 사회로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이 벌어졌다. 현재 약학대학 내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공부만 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내외빈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분위기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반전의 묘미를 보여 주었다.

제일 먼저 록 밴드인 Radix의 공연이 포문을 열었다. 기대 이상의 연주와 노래 실력을 보여준 라디스는 특히 재학생은 물론 이번에 약사고시를 보고 갓 약사가 된 졸업생,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선배는 물론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인 선배까지 망라되어 단합과 집종의 미덕을 보여 주었다. 풍물패 소리나눔의 사물놀이가 그 뒤를 이어 받아 고조된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흥겨운 한판을 멋지게 소화해 냈다.

오프닝 후 사회자가 최고 원로이신 흥흥만(1회) 동기회장을 비롯한 동문들, 박상규 총장과 부총장단, 신현국 총동문회장을 소개했고, 허인회(4회) 명예교수를 위시한 교수진을 소개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어 황광우 학장이 Legacy of the Past라는 제목으로 우리 약학대학의 70주년 발자취를 당시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1953년 2월 중앙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약학대학 약학과를 설치한 것을 효시로 올해 개



교 70주년을 맞은 감회가 진하게 묻어 나오는 역사의 회고
담이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만 안주해서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을 터, 현직
교수진 중 가장 최근에 영입된 조재범 교수가 바톤을 이어
받아 Preparing for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현실에 안
주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70년에서 앞으로의 70년을 조망
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결의를 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박상규 총장, 신현국 중앙대 총동문회장, 정상수
약대 동문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축사가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었다. 1회부터 67회까지 8,3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우리 약대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제40대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박재성 학생회장의
선배들의 업적과 노력에 경의를 표해 주었고, 약학대학 흥
보대사를 맡고 있는 재학생들(Paran)이 재치와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참신하게 구성한 70주년 기념 영상이 큰 박수
를 받기도 했다.

2부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상수 동문회장이 박상규 총장에
서 해당 기간 동안 기탁된 13억 여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함

으로써 자체 행사가 아닌 모교 중앙대학교의 발전을 염원하
는 약대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댄스동아리 UNICUS의 깜찍하고 한편으로 성
숙한 율동을 선보였고, 합창동아리 Calamus의 공연과 함
께 교가 제창을 끝으로 2부 행사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만찬장으로 이동하기 전 황광우 학장의 안내로 새롭게 조
성된 102관 1층 로비의 의미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한쪽 벽면에 학교에 기부한 동문들의 이름을
새겨 부착하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둘러 보고, 깨끗하게 재
정비된 약학도서관 및 진정주 동문의 기탁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 공간 및 기존 2개 강
의실을 통합해 대형강의실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을 두루
안내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 11층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오늘 행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기념 만찬을 가졌다.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
된 덕분인지 열기가 이어졌고, 각종 건배사가 더욱 더 분위
기를 고조시키며 행사의 의미를 확대하는데 부족함이 없었
다. 격식을 갖춰 차려진 뷔페 음식을 앞에 놓고 기념 와인
으로 회포를 푸는 동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질 새가 없
었다.

전 상 훈(17회)
동기회장



우정과 배려의 약속

제17회 졸업 50주년 기념식



2023년 5월 23일 오랜만에 연락이 된 우리 17회 장재인, 전상훈, 송진섭, 이윤석, 신창억 동기들이 모처럼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만나 푸짐한 안주와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쉽게 만나지 못했던 터라 감회가 새롭게 느껴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회포를 풀자고 약속을 하고, 우선 졸업 50주년 행사를 2023년 11월 11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약속을 했다.

시간이 흘러 약속된 11월 11일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약 69학번 동기들의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제는 모두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참을 같이 있다 보니 학창시절 젊음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며 훈훈한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오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안부와 추억과 기쁨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졸업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보니 우정 시간을 내어 각자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자주 얼굴 보지 못하던 기억들과 함께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까지 보이는 동기도 있었다.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부산, 울산, 전주, 서천,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동기들의 열의가 대단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참석해 준 동기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대부분의 동기생들은 현역에서 건강하게 약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음에 많은 자긍심을 가졌다.

모두 남은 세월 건강하고 삶을 사랑하고 재미있게 많이 웃고 살자고 다짐하면서 저녁만찬 후 노래방에 가서 애창곡도 한 곡씩 불렀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재상봉 행사에서 동기들은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열성적으로 조성한 약대동문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체육대회 행사 당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특별히 모신 허인회 명예교수님께서 덕담과 함께 모교의 교훈인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휘호를 한지에 붓으로 써오셔서 동기회에 기증해 주셨고, 참석한 69학번 동기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켜 주셨다. 건강하시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졸업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모처럼 만나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깊은 우정과 서로의 배려를 토대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모임을 계속 이어가자고 약속을 했다. 아쉬운 마음을 가득 담아 만찬주와 함께 힘찬 건강의 외침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69회여 영원히 빛나라!



김 학 선(37회)



달힌 기억 그리고 열린 기억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
37회 동기회



말하자면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기억에 갇혀 있어요. 그것은 1989년 2월, 흑석동의 황량한 운동장에서 고등학생티를 벗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시작해요. 그때 처음 학교를 구경했어요. 당시는 학교에 가서 학력고사를 치를 때라 이미 몇 번 와 보았지만, 정신이 없어서 학교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죠.

비좁은 학교 앞 도로를 지나 교문에 들어서자 루이스 가든이 나왔어요. 고깃집 가든이 아니라 잔디가 깔린 진짜 가든이었어요.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도 정원에 고상하게 있었고요. 그 뒤로 파이퍼홀과 돌로 만든 영신관이 있었고 두 건물 사이로 미친 계단이 나왔어요. 대학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죠. 약대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 한 것 같아요. 오르막을 한참 올라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지나야 비로소 대운동장이 나왔어요. 태릉인들이 울고 갈만한 코스였어요.

며칠 뒤 어느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처음 동기들과 수줍게 눈인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여대생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볼 때 저를 포함한 남자애들도 말이 아니었겠죠. 서로의 실망은 여태까지의 동기 무 커플을 잉태했네요.^{^^}

3월이 되면서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120명의 동기를 두 반으로 나누었어요. 키순으로 하면 벽에다 죽 세워놓고 머리 뺏하는 하는 친구도 있고 재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순으로 잘랐어요. 흥해가 갈라지듯 120명을 A, B 반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뉜 반 아이들끼리 좀 더 친해지게 되었죠.

본격적인 수업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강의실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나와 자기소개를 했어요. 별 관심 없이 듣다가 저랑 비슷한 이름의 동기가 나왔길래 본관을 물었더니 글썽 같은 경주 김가의 계림군파였어요. 서로

가 쑥스러웠기에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일단 마무리했어요. 이어서 1학년 담당 조교가 전공과 교양과목에 관해 설명하고 강의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공강'이라고 하며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과목이 정해지고 대학 서점에 가서 교재를 샀는데 너무 무거워 보따리로 머리에 이고 가야 할 정도였어요. 당시 황금색 레자로 된 손으로 드는 사각형 가방을 마련했었는데 강의가 딱 찬 날은 어깨가 빠질 지경이었죠. 그런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뿔테 안경에 산발 머리, 골덴 바지를 입고 있던 저한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공강 시간이면 할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리며 파이프홀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동기를 얼굴도 잘 모르겠고 만나도 말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뭔가 어색했어요. 제가 그리던 대학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산뜻한 후드티에 책 한 권 옆에 끼고 몇 여성들이랑 시시껄렁한 얘기 하며 캠퍼스 잔디밭을 거니는 그런 광경을 상상했으나 현실은 그냥 나이 어린 아저씨. 어느 날 우리를 또 강의실에 모아놓고 동아리와 실험반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미 약전반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일 년 먼저 들어간 중학교 동기가 약전반이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동기들이 다들 수업 끝나고 비커 닦고 쥐장 청소하느라 바쁠 때 저는 놀았거든요. 또한, 동기가 저 포함 둘인가 셋 되고 전체 재학생도 얼마 안 돼 신입생 환영회 같은 어떤 의미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각종 모임도 없었어요. 약전반의 특혜였지요.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앞줄에 앉은 친구 몇몇이 색색의 볼펜과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장학금을 탔고 저는 F 학점을 받았어요. 심지어 교양필수 과목인 국어 과목에서도 F 학점을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재수강을 해야 하는지라 여름 학기를 신청했어요.

본관의 어느 강의실에서 수업했는데 저 말고도 여러 명이 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안성 캠퍼스 학생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게다가 날이 더울 때라 그런지 맨살이 드러나는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 내가 상상하

던 강의실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는 눈을 붙잡고 수업해야 했어요.

다시 학기 초로 돌아가서, 3월에는 행사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동문회, 향우회, 실험반을 비롯한 각종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 심지어는 종로학원 출신 모임도 있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 갔는데 한 선배가 '약수'라는 친목 단체를 소개시켜 줘 가입했어요. 그 이후 제 대학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약수 동기들 아홉 명과는 불X 친구가 되어 지금까지 만나고 있죠.

이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놀러 가는 곳이 되었어요. 수업은 취미 생활이었죠. 강의실이나 당구장, 실험반, 식당 등 가는 곳마다 동기나 선배가 있었어요. 같이 어울려 당구 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놀았죠. 자연스럽게 공부랑은 담을 쌓게 되었고 결국 전공과목에서도 F 학점을 몇 개 받았어요. 그렇게 세 학기를 흘려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 년 반 뒤 복학하고 뒤늦게 철이 들면서 놀면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필통에 색색깔의 볼펜과 형광펜이 있었고 선배에게서 받은 기출 시험지인 '소스'와 정리 노트도 있었어요. Figure를 좋아하는 새로 오신 교수님 덕에 그림을 통째로 외워 시험지에 그려 넣어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요.

대부분의 동기는 1993년에 졸업을 했지만 저처럼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2년이나 3년 뒤에 학교를 마쳤어요. 같은 해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제각각이었죠.

졸업 후 각자 대학원에 가거나 회사나 약국에 취직하면서 함께하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이는 곧 같이하는 기억이 없어졌다는 의미죠. 중세 암흑기에 버금가는 비어버린 20년의 기억이에요. 그사이 우리는 역할이 달라졌어요. 학생에서 엄마와 아빠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부장이 되었고 학교에 남아 교수님이 되기도 했어요. 받기만 하던 철딱서니 없는 녀석들이 주고받는 예절을 아는 어른이 된 것이죠. 그 사이 동아리나 실험반 같은 작은 모임은 있었지만, 동기 전체로 확장되진 않았어요.

그러던 2013년, 졸업 20주년 모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되었어요. 어느 학번에서는 몇 명이 모였는지 어느 학번에서는 얼마를 모았는지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보통 10월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8월이 다 되도록 동기회장도 뽑지 않은 상태였어요. 당시, 페이스북에 가입한 동기들끼리 89그룹을 만들었는데 멤버가 스무 명 정도 됐어요. 거기 있던 멤버 중 한 친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섰고 그는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곧바로 총무를 지명하고 회장단을 꾸렸어요. 두 번째 공유 기억의 시작이에요.

제일 처음 한 일은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20년의 기억을 더듬는 것이라 쉽지 않았어요. 동문회 명단과 일일이 대조하며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명단에 없는 동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수배를 부탁했어요. 그럼에도 몇몇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를 파악한 동기는 백 명이었어요. 그중 53명이 회비를 냈고 50명이 행사에 참석했어요. 2013년 10월 20일이었죠. 1989년 이후 처음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인 것이었어요. 화려했고 그에 걸맞은 많은 기억을 함께한 날이었어요.

여세를 몰아 그해 12월에 송년회도 했어요. 18명이 참석했는데 멀리 전주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었어요. 2014년은 그냥 보내고 2015년 1월에 신년회를 했어요. 이때는 열한 명이 참석했어요. 모임을 알리는 공지를 보낼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적어야 좀 더 호응이 있을까? '우리 같은 실험조였잖아', '기억나? 그때 그 루이스 가든에서' 처럼 감성적인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같은 실험조 아니었는데 왜 사기 치냐?', '루이스 가든에 토한 기억밖에 없다' 처럼 재미있는 답글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참석률은 많이 나

아지지 않았어요. 2015년 가을 인왕산 산행에 아홉 명, 다음 해 봄 산행 때는 일곱 명만이 모였죠. 그 후 매년 신년회나 송년회가 있었지만 모임에는 저를 비롯한 골수분자 몇 명만 나오는 실정이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레짐 체인지를 모색했어요. 기존 회장 단과는 다른 배경의 친구가 필요했죠.

다행히 그에 맞는 동기가 나와서 새로운 집행부가 2019년 말에 들어섰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6년간의 회무를 마감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모든 동문회 일정이 중단되었지요. 그러나 2차 암흑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진 2022년 10월 동문 체육대회에 세 명의 동기가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다시 기억을 나누었어요. 작년 3월 안산 우중 산행에 네 명이 함께 했고 곧이어 4월에는 여섯 명이 서울 둘레길을 산책했어요. 9월 동문회 골프대회에도 여섯 명이 참석했지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동문 체육대회 때는 아쉽게도 두 명만 참가했어요. 참석 인원은 조금 적었지만 모임은 꾸준히 계속되었어요.

2023년은 우리가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라 장학기금과 발전기금을 모아 동문회에 전달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30주년 모임은 호응이 적어 하지 않았지만, 회비를 낼 때는 제법 많은 친구가 도와주었어요. 총 32명의 동기가 참여하여 목표 액수를 채웠는데 여기에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 회장의 피눈물이 담겨있어요. 우리 89학번의 기억은 여기서 닫혀요.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철없던 소년의 방, 성질부리던 사춘기의 방,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던 청년의 방 같은 기억의 방이 있고, 한편으로 한없이 어린 마음의 방, 독한 마음의 숫자의 방, 애달픈 사랑의 방 같은 인격의 방들이 있어요. 그런 무수히 많은 방 중 우리는 '1989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입학 동기'라는 방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곁을 내어주던 1학년 시절과 화려했던 11년 전의 리유니언이 들어있어요.

앞으로의 기억은 열린 상태예요. 우리의 방이 어떻게 채워질지 무척 흥미롭고 설레요. 요즘 저는 산에 가거나 여행할 때 느슨하게 계획을 세워요. 빈 시간의 유동성이 뜻하지 않은 환희를 줄 때가 있거든요. 반도 더 남은 우리의 느긋한 방에서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황혼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동기가 이 방문을 닫을 때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지으면 좋겠어요.





로마 카타콤에서 카푸치노를 배우다

-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커피, 카푸치노



카페인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배부른 소리를 하지 않던 시절

내가 커피에 관해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세계 커피 족보에도 없던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도 마시는 창의적인 나라에서 그것도 염천 하늘 아래서 뜨거운 카푸치노를 고집하며 봉다리 설탕까지 털어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지는 물어보는 게 민망한 일이다.

일견 무지함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다.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면 술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네 풍습이었고, 술도가로 술 심부름 가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 몫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커피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소위 말하는 정다방 커피다. 맥심이나 맥스웰 하우스 커피 두 스푼에 프리마 두 스푼, 그리고 여지없이 설탕 두 스푼이 들어가는 바로 그 레시피(학술용어로 'rule of 2·2·2')로 처음부터 입맛이 길들여졌다. 카페인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배부른 소리를 하지 않던 시절이라 구하기도 힘든 카페인 없는 상카 커피는 별종들이나 마시는 것쯤으로 치부했다. 그 연장선상에 봉다리 커피(커피믹스)가 있다. 겨울 산행 야간 텐트에서 매서운 추위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응급처치약은 애시당초 초장에 비워버린 진로나 캡틴큐가 아니라 코펠에 남은 봉다리 커피 무조 건 다 때려 넣고 팔팔 끓인 커피 한 사발이었다. '커피는 설탕 맛' 이라는 게 자랑스런 구호였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두 번째는 한국에 카페 문화와 함께 온갖 종류의 커피 메뉴가 등장하던 시기의 것이다. 직장에서야 없는 아이디어 짜내느라 여전히 빈속에 자판기 커피 석 잔, 담배 석 대가 회의실을 지켰던 시절. 어느 날 학교에 강의하러 왔다가 연구실 대학원생들 점심 사주고 커피를 마시러 갔다.

다방 말고 카페라는 것이 하루걸러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 주문하는 메뉴판은 외계어 투성이었다. 아메리카노까지야 어쨌든 알겠지만,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무슨 라테에 모카신은 또 무엇이며 마끼아또 어찌고 하는 데서는 질려버렸다. 원생들의 도움을 받아(분명 약간의 비웃음도 있었을 것이다) 겨우겨우 문화적 충격을 이겨내고 뭘 맛인지도 모른 커피 마시고 집에 가서 절치부심 공리를 했다.

뜨거운 카푸치노에 설탕을 뿌리자 비로소 간이 맞았다

앞으로 커피 마실 일은 창창할 것이고, 여유 있는 듯 폼 잡으며 주문할 커피 이름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봉다리 커피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카푸치노였고(솔직히 이름이 뭔가 풍기는 듯해서 끌렸을 것이다), 이후 어떤 경우에도 커피는 카푸치노 한가지로 목을 땀다. 문제는 모양이나 질감은 비슷하니 모르겠으나 자체로는 옛날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설탕을 넣어야 했다. 그제서야 간이 맞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커피의 순수한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또한 중년층이면 대중 피해갈 수 없는 고혈압, 당뇨병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커피에 설탕을 치는 무식한 짓거리는 삼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트렌드를 거스르는 무지함을 자랑이라도 하듯 비장의 무기 설탕을 추가했다. 까짓 커피 한잔 내 입맛대로 못 마시고 남들 눈치 볼 일 무엇이더냐?

이후 커피를 마셔야 할 모든 경우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절에 상관없이 이글거리는 햇빛 아래서도 '카푸치노 뜨거운 거에 쓰리 펌핑(시럽 세 번 팡팡 때려 넣는 거)' 이 대명사가 되었다. 심지어는 메뉴가 없는 곳에서조차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줬고, 생각지도 않게 보너스까지 챙기게 되었다.

일단 아·아를 시키는 게 자연스런 상황에서 뜨거운 카푸치노 시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약간 웃기는 놈이네' 하다가, 시럽 추가에 완전히 무장해제 되어 버린다. '저 자는 커피 맛 제대로 모르는 촌놈이고, 흠 어쨌면 별로 해를 끼칠 존재는 못될 것 같아.' 내 음흉하거나 뻔뻔이 같은 소갈머리 혹은 고집이 센 뭐 이런 생각들은 그냥 이유 없이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라떼는 말이야'를 철없이 외쳐도 힐난하지 않고 '재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다들 그러러니 해주니 어찌고 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까짓 커피 한 잔으로 이만한 보상을 받다니!



뜨거운 커피에는 시럽이 아니라 설탕

이쯤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럽을 봉다리 설탕으로 바꾼 이유를 밝힘으로써 사실은 내가 그리 무식한 자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후배와 점심을 먹고 흑석동 시장통 구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젊은 주인은 강릉의 저 유명한 테라로사의 바로 그 장인에게서 직접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 후배와 밥 먹으면 으레 그 집에 가는 고로 손님 없을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정도의 안면은 틈 상태. 어느 순간 어디서 바리스타 공부했냐 이런 이야기는 나눌 정도는 되었던 터였다. 이제는 카페 문 들어

서면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카푸치노 내려주는 뭐 좀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다고나 할까.

어느 날 역시 정성껏 내려준 카푸치노에 아무 생각 없이 시럽 투하하려는데 이야기를 좀 하잔다. 자기도 커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격식이나 원칙 같은 걸 중시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따질 일은 아니라는 자각이 들었다고 했다. 커피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즐겨야 한다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달하게 마시면 또 어떨냐는 것이다.

그동안 촌놈 편하게 커피 마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걸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다. 듣고 보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체는 뜨거운 커피에는 설탕을 타는 것이라고 했다. 시럽이 나온 이유는 뜨거운 커피에는 설탕이 잘 녹지만 차가운 경우에는 잘 녹지 않으니 그래서 시럽을 타는 것이라고 했다.

거 봐라, 커피에 처음부터 뭘 타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하면 시럽이니 설탕이니 시비 걸 일 없을 걸 왜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생각해야 하느냐고 지적할 할 것이 눈에 선하다.

어쨌거나 작은 일이지만 듣자마자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고, 따라서 그 즉시 시럽 대신 봉다리 설탕으로 '전략적 자산'을 바꾸게 되었다.

이후 커피를 마실 일이 있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당연히 뜨거운 카푸치노에 스틱으로 된 설탕을 당당하게 주문하는 것이 불변의 루틴이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쩌다 안 가본 카페에 가면 카푸치노가 없으니 그 비슷한 카페라떼를 권유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을 어찌 보고?

카푸치노의 풍미를 라떼로 대신하라니(실은 기본이 되는 커피 맛도 모르고 마시는 수준이니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를 알 리 없다)! 게다가 너무도 당당하게 설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필요하면 시럽을 섞으라는 상식 이하의 무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다. 전문 매장에서조차 설탕과 시럽의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전국의 카페 주인들이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익성 따지지 말고 카푸치노를 메뉴에서 빼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아울러 시럽과 설탕의 쓰임새가 다르니 반드시 스틱형 설탕을 비치해 두시기를 권하노라.

불별더위 속에서도 달달하고 뜨거운 카푸치노만 찾는 끈대이긴 하지만, 숙달된 바리스타가 공들여 라테아트 작품 만들어 주면 그 즉시 설탕 쏟아붓고 휘휘 젓는 무식한 인생은 아님을 장담한다. 시간을 들여 예술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아주 조금씩 섬세하게 설탕을 뿌려주는 정도의 예의는 갖춘다는 말이다.

빼 교회 카푸친 수도사들의 해골이 전하는 말씀

- 머지않아 당신도 우리와 같아질 것이다

그저 커피 한잔 조용히 마시면 될 일에 사족이 너무 길었다. 사실은 로마 카타콤 관광에서 생각지도 않게 카푸치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봉다리 커피 대신할 비장의 무기로 카푸치노를 택한 무지몽매한 자에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글귀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카푸치노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커피다.'

몇 년 전 여행의 목적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경유지로 들린 로마에서 몇 군데 유적지는 봐야 했다. 콜로세움이나 트레비 분수 앞에서 증명사진을 안 찍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 전체가 유물이라는 나라에서 어딘 보고 어딘 안 볼 수 없으니 해서 선택된 관광지가 카타콤이었다.

소식적 사회시간에 배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절의 거대한 지하무덤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곳 말이다. 오늘날 로마에는 50개 이상의 카타콤이 알려져 있고, 그중 몇 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선택한 관광코스는 로마 시내 바르베리니역 근처에 있는 카푸친 크립트를 먼저 본 다음 약간 시 외곽으로 나가 전형적인 카타콤을 둘러보는 상품이었다(Catacomb & Capuchin Crypt Tour). 카푸친 크립트는 바르베리니역 근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 본원의 지하에 있는 토굴로 된 지하묘지로, 죽은 카푸친 수도사들의 뼈를 이용하여 만든 장식으로 유명한 ‘뼈 교회(bone church)’로 불리는 곳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가 설립한 작은형제회의 분파 중 하나인 카푸친 수도회 본원이 바로 로마 시내 바르베리니역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수도원의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지하 납골당으로 내려가는 순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광경에 압도된다. 눈앞에 몇백 년에 걸쳐 카푸친 출신 수도사들의 유골 4,000여구를 동원해 정교하게 장식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 회로 일시 정지, 무슨 말을 덧붙이랴. 사람의 뼈로 장식을 하다니! 아무리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수도사들의 세계라고는 하나 사람의 뼈를 가지고 예술적인 성취까지 이뤘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셀 수도 없는 죽음의 흔적 앞에서 삶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되새겨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의미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해설에 따르면 이곳의 해골들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우리도 당신과 같았다. 머지않아 당신도 우리와 같아질 것이다.’ 내부는 해골의 지하실, 부활의 지하실 등 각기 주제를 달리하는 몇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가에 홀린 듯 몽롱함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을 해매다 나중에 다른 이들의 감상문을 보고 겨우 한두 가지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을 따름이었다. 두개골과 대퇴골로 만든 아치가 있고, 수도복을 입은 해골들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고, 겹겹이 뼈를 쌓아 올려 만든 제단도 보이고, 심지어는 골반뼈로만 채워진 장식도 보인다. 천정이고 벽이고 크고 작은 사람의 뼈를 정교하게 짜맞추고 이어서 장식을 해놓았고, 십자가도 재료가 뼈이며, 심지어 상들리에조차 뼈로 장식되어 있다. 기독교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형상화한 철사에 묶인 뼈들도 있다.

둘러보는 내내 한편으로 으스스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대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어떻게든 경건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출구에 라틴어로 새겨져 있는 ‘당신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미래다’ 라는 글귀가 당연하게도 친숙하게 다가왔다.



로마군인들에게 그늘을 제공한 우산 소나무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에 비행 시차에 따른 몽롱함까지 겹쳤고, 무엇보다 지하 납골묘의 분위기에 압도되기도 한 탓인지 사진 한 장 찍을 엄두를 못냈다. 이어진 외곽의 그야말로 평범한(?)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은 상대적으로 별 감흥이 있을 리 없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 가이드가 설명한 우산 소나무(umbrella pine)가 그나마 기억에 남는다.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성장하면서 가지 윗부분이 우산처럼 펼쳐져서 생긴 이름이나 옛날 로마군인들이 출정할 때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을 만들 요량으로 심었다는 설명이 이채로웠다.

카푸치노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커피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량의 와인을 진통제 삼아 어찌어찌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를 파악하고는 '죽음을 기억하라(너는 반드시 죽는다; Memento mori)'라는 철학적 명제에서 탈출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카푸친 수도원, 카푸친 수도사라니, 카푸치노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카푸치노라는 이름은 수도회인 카푸친 작은형제회(OFM Cap)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청빈의 삶을 살며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따라야 한다는 성 프란치스코를 추앙하는 수도사들이 모임이 작은형제회다.

이들은 관상기도, 고행, 전례 성서에 기반을 둔 설교,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양식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형제들은 청빈의 상징으로 긴 세모꼴 두건(capuccio)이 달린 원피스 모양의 갈색 수도복을 입었는데, 이를 보고 대중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카푸치니(capuccini)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여기서 진한 갈색의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얹은 모습이 카푸친 수도사들의 바로 그 두건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오늘날의 카푸치노(cappuccino)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 카푸친 수도사들이 갈색 옷을 입고 머리 일부분만 남기고 가운데를 식발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비슷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실제로 카푸친 수도사들이 자주 만들어 먹던 커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도 제법 그럴듯하다.

무신론자 주제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를 묵상한다는 천주교의 위령 성월(11월)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11월에는 카푸치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계절이라는 어느 분의 말씀이 진한 향기와 함께 가슴으로 스며들어 왔다.

철학적, 종교적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요즘 세상에서 혹시 차 한잔 나눠야 할 때를 대비해 생존의 방편으로 택한 커피 한 잔. 한겨울에도 아·아를 주문하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면 한여름에 뜨거운 카푸치노를 외치는 무지한 중생에게도 부디 자비를 베푸시라. 그리고 씩 웃으며 같이 목청을 높이자.

‘커피는 설탕 맛이야!’



장학금 기탁의 작은 날개짓이 ‘나비효과’가 되기를!

뉴욕 장순걸(11회) 동문 장학기금 10,000불 쾌척

지난 2023년 10월 24일(화) 12시 모교 약학대학 동문회 사무실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기금 전달자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장순걸(11회) 동문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10,000불을 선뜻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기금으로 쾌척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 정상수(24회) 약대 동문회장, 김창중(11회) 명예교수, 이남진, 이교문, 장헌수, 고승하 동기들과 함께 참석했다. 동문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장순걸 동문은 1963년 약학대학에 입학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60년이 흐른 2023년에 고향인 흑석동 캠퍼스를 방문해서 20대였던 그때의 감상에 젖어가며 또 한편으론 고국의 藥界에 우뚝 선 中央을 감격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는 한반도에서 태어나 태평양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 성숙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본능을 완성시키는데, 그 험난한 2만km의 여정 중의 고난과 좌절도 종족 보존의 열망을 꺾을 수 없는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장순걸 동문의 일생은 연어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음을 그와의 대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1975년 고국에서 잠시간의 약국생활을 접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출발한 지 어언 48년, 숏한 고난과 절망을 이기고 이제 그 출발지인 고국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찾았고 동문회에 장학금을 쾌척함으로써 그의 심중에 간직했던 목표를 이루었으니 회귀본능이라는 인간의 완성을 느끼게 한다.

황공용(11회)
편집위원



장순걸 동문의 미국 약사의 꿈은 1975년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전문인력 문호가 단기간 개방되었고 한국의 약사면허도 이에 편승해서 미국 약사에 도전할 자격이 일정 기간 부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연히 이 기회를 접한 장순걸 동문은 쉽지 않은 도전의 길을 선택했다.



도미 후 장순걸 동문은 영주권 취득과 약사면허 취득을 3년 안에 이루었고 이어서 천신만고 끝에 미국병원에서 미국 약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불과 600달러 시대의 미국은 Blue Ocean이었고, 장순걸 동문이 잡은 이 기회는 태평양을 건너 일생을 보내는 연어의 삶을 떠 올리기에 너무도 흡사하다.

그런 맥락에서 2023년은 장순걸 동문에겐 유의미한 해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개교 70주년이며 본인의 입학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장학금 1만불의 꿈을 실천했음은 시기적으로 매우 타당했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유기화학을 가르쳤던故고윤식 교수를 존경한다는 장순걸 동문은 2016년 모교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한 동기동창 김순호 약사의 소식이 실린 '중앙약대 동문회보'를 보고 "나도 언젠가는 꼭 모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이제 이 일을 끝마쳐서 마음속에 들어있던 큰 짐을 정리한 듯 너무 시원하다"고 술회했다.

그로부터 4일 후엔 필자가 주선한 서울시민숲에서의 번개모임을 통해 中藥人의 자부심과 미국 약사로서의 애환을 나누면서 본인이 중앙약대 동문회를 향한 장학금 기탁의 작은 날개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다.

장순걸 동문은 4년 후인 2027년에는 졸업 60주년을 맞게 되는 11회 동기들이 모이는 곳에 다시 귀국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아쉬운 발길을 옮겼다.

이날 번개모임에는 번개 같은 연락 하루 만에 장순걸 동기를 만나기 위해 고승하, 남복석, 박상희, 박승보, 유영운, 장헌소, 최래순, 황공용이 참석하여 입학 60주년을 조촐하게 기념했다.





월파(月坡) 한덕용(韓德龍) 교수님을 고이 떠나보내며...



평생 생약학 교수로서 후학양성과 학문연구 및 저술 활동을 계속해 오신 우리나라 약학계의 원로, 98세이신 월파 한덕용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월파 선생께서는 1926년에 강릉에서 출생하시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1952)와 석사(1956)를 마치시고 1967년에 동 대학에서 신제(新制) 제1호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6년에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종합약학과 객원교수로 계셨습니다. 한 박사님은 1955년부터 1991년까지 36년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시는 동안 학장(1971~1977), 대학원장(1982~1984) 및 동양약학연구소 소장 등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월파 선생께서는 한국생약학회 회장(1972.~1973.) 및 대한약학회장(1985~1986),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1969~1990)을 역임하였으며, 여러 제약회사의 천연물 제품개발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시는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해 오셨습니다. 특히 한 박사님은 평생 chemical abstract에 수록된 생약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최신 생약학(生藥學) 개정판'을 저술하셨으며, 수십 편의 논문을 남기신 학자이십니다.

월파 선생께서는 누구보다 더 중앙대학교 미래와 약학대학 발전에 기여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기에 약계에 훌륭한 제자를 많이 배출하셨는데 특히 많은 학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생약학 교수로 원광대 약대 김정희(12회) 교수, 중앙대 약대 이민원(25회) 및 황완균(26회) 교수, 대원대 제약품질과 조순현(25회) 교수 등을 배출하였으며, 또한 중앙대 식품가공학과 윤광로(9회) 교수 및 약대 병태생리학 김창중(11회) 교수 등을 지도·배출하셨습니다.

한 교수님은 우리나라 약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약사회 약사금탑, 약업신문 동암약의상, 대한약학회 약학교육상, 제1호 약사평론가 기장(의학신문사)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약학을 전공하신 월파 은사님은 약사공론과 약업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약계나 약학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사설로 발표하시었으며 그 귀중한 원고들을 모아 1991년에 '장인(匠人)의 원(願)'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에세이집 책 머리에 "소년시절에 詩인이 될 것을 꿈



생각과 인생의
명칭을 밝히라

꾸어 왔으나 어떻게 보면 인생은 희망을 안고 살다가 결국은 未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기술하시면서 그가 추구하고 신문지상에 투고하셨던 우리 세대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는 사추(思推)와 인식(認識)들과 醫·藥學史를 기록하여 후학들에게 역사를 알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교육하셨습니다.

월파 교수님께서 중앙대학 약대에서 생약학을 강의하신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인 1964년 3월에 제가 2학년 때 학년 지도교수를 맡으셨으니 師弟의 인연을 맺은 지 60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그 슬픔을 어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학장님께서서는 조교 혹은 강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당시 미국 약대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병리학을 공부해 두면 장래가 열릴 것이라는 운명같은 조언을 주신 은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교 의과대학에서 생리학,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내과학 등 기초의학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때 故 김일혁 학장님께서 병태생리학 교수로 채용해 주심으로 한국 약학대학에 병태생리학 교육이 도입되고 임상약학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월파 교수님께서서는 학장과 대학원 원장 보직 중에도 항상 백색가운을 착용하시고 생약의 약효성분을 추출하시기 위해 분핵갈대기를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 파노라마같이 스쳐갑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진취적으로 개조시키신 교육자로서 약업계 안팎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신 큰 어른시며, 모범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月坡 은사님께서서는 제가 퇴직시 발간했던 ‘병태생리학교실 논문집’의 치사(致辭)에서 “人生一生行路難 底廻不運近十年 今日出頂懷無量 一?泉水清百年 <月坡>”라고 작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일전 김일혁 교수님은 저의 자서전 ‘약학인생 반세기’에 기고하신 축사에 “그 옛날 중국의 춘추시대 齊나라의 영원한 친구인 두 충신 管鮑와 鮑叔의 성을 따서 두 사람의 우정을 담아 전해오는 管鮑之交 이상의 그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글을 저에게 남기셨으니 제자인 저로서는 가문의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파 한덕용 교수님, 은사님이시여!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약계인들의 존경과 가족친지들의 사랑을 모두 받으시고 큰 고통 없이 따뜻한 가을철에 소천 하시었으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하고 포근함을 넘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생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큰 별이 되어 저승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몇 년 전까지 一田 김일혁 교수께서 먼저 가시어 아쉽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뿐인 醫師인 자식을 먼저 저세상에 보낸 슬픔을 지니신 월파 선생님! 그러나 잘 성장한 손자와 손녀가 사모님을 모시고 잘 살아갈 것이니 복잡한 세상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편히 영면하소서——

불초제자 중앙대학교 약대 명예교수 김 창 중



김홍진(22회) 명예교수, 국내 최초 9가 HPV 백신 개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인 (주)포스백스의 김홍진 대표가 9가 HPV 백신의 개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자궁경부암 원인의 거의 100%를 차지하며, 기타 다양한 암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어 여성 및 남성의 암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은 백신이다.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HPV 백신을 포함하고 있지만 백신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현재 NIP에 적용되고 있는 HVP 백신은 2가 및 4가 백신이며 9가 HPV 백신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고가의 접종 비용 등으로 인해 9가 HPV 백신에 대한 국산화 및 NIP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백신 제조기술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주)포스백스의 9가 HPV 백신의 임상 시험 진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김홍진 명예교수는 2004년 HPV 백신의 항원인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Like Particle, VLP) 기술을 최초로 고안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John T. Schiller 박사를 만나 이후 8년간의 연구 끝에 HPV VLP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VLP에 특화된 신개념의 기술을 개발하여 12개국에 25개의 특허로 출원하게 되었다. 해당 특허는 현재 100% 등록된 상태이다. (주)포스백스는 현재 9가 HPV 백신의 글로벌 임상 2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약학대학 김지산 · 한리-AI대학원 장준보 학생, 신약개발 AI 대회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 수상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2023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빅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첨단바이오 심포지엄’을 통해 ‘신약개발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대회는 AI 신약개발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인재들을 확

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총 1,254팀이 참가하여 한국화학물은행 데이터를 활용한 ‘화학물 대사 안전성 예측 모델 개발’이란 과제를 받은 참가팀들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점수를 실시간 확인하는 방식으



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상위 9개 팀을 선발해 2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학대학 김지산 학생과 한리 학생, 시대학원 장준보 학생이 참가한

우리 대학과 아주대 연합 'datu 팀'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datu 팀은 이번 대회에서 화합물의 구조를 통해 간 대사 안전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대사 안정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자들을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신약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신약 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다.

약학대학 김지산 학생은 “다른 분야를 전공한 팀원들이 모델 구현부터 발표평가까지 원활하게 협력하며 열심히 준비했다. 덕분에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협업을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진로탐색 멘토링 성과보고회 열려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자기 주도형 학습을 위한 멘토링” 성과보고회



약학대학 5학년 학생들의 폭넓은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보고회가 1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광우 약학대학장, 정상수 약학대학 동문회장, 진정주·김정태 동문을 비롯해 약학대학 학생들과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를 가진 약학대학 멘토링은 약학대학 5학년 학생들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직, 약국/병원, 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법조, 투자 등 6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대학 동문들이 멘토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졸업 이후 도전 가능한 여러 직능과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예비 약사가 될 약학대학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다.

약국분야의 경우 진정주약국·진약사물 대표인 진정주 동문의 ‘약사면허, 그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어 (주)코아팜바이오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정태 동문이 ‘약학전공자가 행복해지는 진로선택’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강 이후로는 이번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현수 학생이 학생대표로 황학장에게 수료증을 받았다.

Donor's Wall에 이름을 새길 동문님의 기부를 기다립니다

-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행사에 발맞추어 발전기금 모금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발전기금은 약학대학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연구, 장학 등의 용도로 지정 기부할 수 있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마음으로 동참하시어 우리 약대의 저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학관 1층 벽면에 새로 조성된 기부자 명단(Donor's Wall)에
기부자들의 이름이 크고 의미있게 새겨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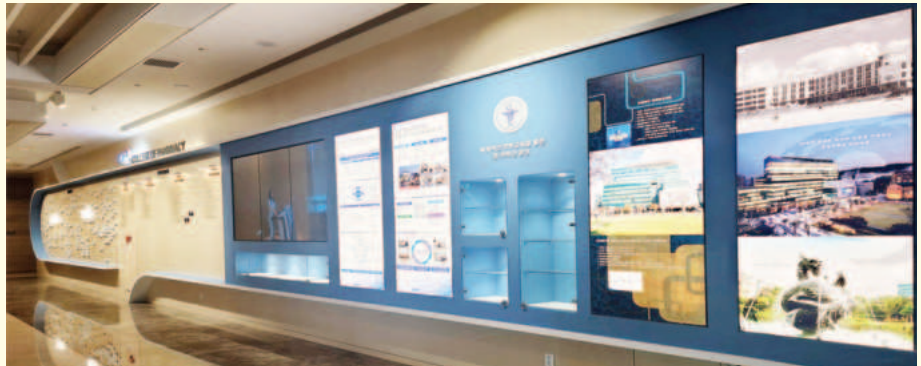
정상수(24회) 동문회장



조의환(8회) 회장



박종혁(38회) 변리사



1층 로비 사진



기부자 명단(Donor's Wall)

약학대학 발전기금 현황

2023년 12월 ~ 2024년 2월

기수	성명	기부금액
24회	정상수	500,000,000
01회	홍흥만	1,000,000
08회	조의환	50,000,000
08회	이백천	5,000,000
08회	허근희	1,000,000
10회	유정사	3,000,000
11회	김창중	1,000,000
12회	황순오	10,000,000
14회	김동원	1,000,000
22회	최광훈	5,000,000
23회	홍순욱	10,000,000
24회	함삼균	2,000,000
24회	이광섭	2,000,000
24회	임무호	10,000,000
24회	이규삼	2,000,000
24회	최영욱	5,000,000
25회	최두주	1,000,000
25회	김광호	3,000,000
27회	염승호	3,000,000
32회	유완진	1,000,000
32회	손수정	3,000,000
32회	이경우	1,000,000
32회	김익수	5,000,000

기수	성명	기부금액
32회	임형미	3,000,000
33회	김정태	10,000,000
35회	35회동기회 일동	20,000,000
36회	김진수	1,000,000
38회	진정주	150,000,000
38회	박종혁	100,000,000
40회	이병두	1,000,000
62회	김의석	2,000,000

성명	기부금액
학장 황광우	5,000,000
교수 김훈영	1,000,000
교수 나동희	10,000,000
교수 민경훈	1,000,000
교수 민혜영	1,000,000
교수 오경택	1,000,000
교수 오미현	2,000,000
교수 유희찬	5,000,000
교수 이성훈	1,000,000
교수 정경혜	2,000,000
교수 조재범	5,000,000
교수 황완균	1,000,000
합 계	947,000,000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3회계년도 회비내역 2023년 6월 ~ 2023년 12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4회	김동섭, 김승재, 김태두, 박길태, 변영건, 양성삼 윤원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희상, 임무호 장규옥, 정상수, 정종근, 조종래, 최영욱, 최인원 최종정,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32회 김신규, 김익수, 임형미, 정선종
25회	김광호, 이현수, 최두주	33회 김정태, 강기석
26회	한갑현, 최민규	34회 신수민, 이선민
27회	박영달, 꺾니윤	35회 김진, 이경선
28회	구영삼,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김영희	36회 임성호, 우경아, 김진수
29회	김인혜	39회 이정근
30회	김광식, 최병원	40회 이병두
		41회 김정민, 최명수
		42회 이광희
		45회 고기현

이사회비		150,000원
5회	김채윤, 조동준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종,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서동철, 윤명숙,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정중서, 조병훈, 조종호, 최의한, 하충렬, 홍순욱
6회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임완호	24회 심영철, 윤세형, 이동훈, 이형수
7회	용영일, 정재일	25회 김희섭, 백광현
8회	박번일, 배영애, 이백천, 조의환, 최영자, 한석원 허근희	26회 김안식, 김정수B, 손영상
9회	김영빈, 이근배	27회 오순용, 오흥설, 최총식, 현기원
10회	김명민, 박호일, 심수일, 유정사,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28회 고재호, 김유곤, 이병천, 최용철, 한용문
11회	고승하,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이철규, 황공용	29회 강춘원, 박웅삼, 손병로, 유종운, 한일룡
12회	남기탁, 노덕재, 염윤기, 이관하, 조택상	30회 김연하, 김성배(김해승), 김혜수, 최병태
13회	구연홍,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윤해선, 이상길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윤국, 김종열, 신광근, 양인승 조길도, 조병화	32회 손수정,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5회	이영운, 임영식, 조찬휘	33회 김영재, 이용석, 이정수
16회	백승복, 이은솔, 최광식	34회 김보원, 임현주, 한일권
17회	선우영환, 장재인, 전상훈, 전우준	35회 양윤정, 오창현, 임종식
18회	강응모, 김기명, 조중형	36회 이정석
19회	김행소, 박효식, 안병호, 윤건섭, 이경옥, 임종철	37회 안익성
20회	구장림, 김영식,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박기배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정찬헌, 최석중	38회 김인성, 최은영
21회	김수배, 김중효, 백운경	39회 민필기,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22회	강희윤, 김인선, 김홍진,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이현희,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55회 김성태
		57회 서해준
		58회 김은혜, 김태수
		62회 김준하, 박영호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심재창(12회), 박광재(12회), 김태성(17회), 김관식(25회) 김기형(26회), 진정주(38회), 이지윤(46회)	

일반회비		30,000원	
6회	신의명	28회	김경완, 김형준, 오상기, 이석원, 정유성, 조한균, 조효금, 한성호
7회	윤정자, 이강형, 이상현	29회	권혁자, 김응관, 우종오, 이성문, 장우성
8회	김진우, 김형이, 박희철, 신현우, 유재우, 이능자, 임영숙, 임진택, 정달수, 정재영, 정형숙, 조현인, 최귀령	30회	강성희, 고은숙, 김미영, 김상의, 김선겸, 박복자, 배영숙, 서정봉, 손은실, 이경숙, 조민숙, 최현희, 홍염미
9회	권태섭, 김학원, 손광자, 이병호, 이해자, 정상모, 조남태, 조병일, 최인자, 한정희	31회	구상미, 김향수, 나금희, 류문숙, 박영란, 손호준, 오대근, 우광익, 이동익, 임기상, 최윤실, 한미영
10회	김정남, 박광일, 이원일, 전광석	32회	김재섭, 김정중, 김지현, 김형기, 나희진, 박상희, 임형미, 안승희, 유완진, 육재분, 이경준, 이종은, 전경숙, 정세진, 정현삼, 주재현
11회	구자역,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서정일, 송상부, 안홍신, 양계창, 이교문, 이남진, 이명옥, 장현소, 전창환, 심재관, 황한성	33회	강민식, 박경록, 유정순, 윤종배, 이준복, 최수향
12회	강창희, 김대건, 김동욱, 김신우, 김창섭, 김초성, 민명임, 변봉욱, 옥정남, 우홍길, 이수웅, 이원주, 이정희, 이종욱, 임순성, 장광웅, 정용오, 정재균, 조병숙, 최복자, 최승은, 최창목, 황순오	34회	김영미, 김용수, 노영화, 류지숙, 박경아, 백희숙, 성선경, 이영은, 차은희
13회	김길영, 김태종, 김희겸, 문우호, 손찬규, 신석준, 우동진, 최호순, 홍성구	35회	김경실, 박소영, 손은경, 우난숙, 최경순, 허진욱
14회	김영일, 김인덕, 류효성, 상경숙, 이강련, 이희영, 전봉선, 정진모, 채성기, 최종택, 홍성철	36회	김정란, 박화신, 방극상, 양성운, 유복진, 이명숙
15회	김태영, 김형수, 박인호, 송현숙, 우순연, 이명숙, 조두섭, 황인영	37회	서승희, 이경모, 장미현, 차선옥
16회	노상섭, 박상환, 신규연, 윤영위, 조연심	38회	성치순, 이강국, 이봉상
17회	김상집, 신승백, 심상근, 이동우, 인익진, 전상훈, 정갑진, 주완표	39회	김명철, 김성용, 전병선
18회	남애숙, 양만기, 여운숙, 육득윤, 임태영	40회	김나연, 성종호, 정병찬
19회	고문찬(고재무), 남윤수, 유태일, 이석명	41회	구영준, 안은진, 이호섭, 임소영, 최진희
20회	김종갑, 방금숙, 우영각, 이광영, 이종훈, 장영철, 홍철수	42회	김록원, 민명기, 엄충섭, 이창경, 임태규, 황인영
21회	김구영, 김동연, 김진자, 박전희, 백기홍, 송주식, 송진용, 신길득, 안병현, 우건상, 이만형, 이진경, 조복, 최병철, 한태식	43회	김중호, 송세현
22회	이영욱, 장상대, 장용운, 정태화	44회	김민수, 김수길, 유경미, 정영자, 정의찬
23회	강호영, 김봉래, 김재한, 나용태, 박찬중, 송명숙, 오신환, 이건주, 임창영, 천경호, 최경선, 한병철	45회	권영삼, 김정겸, 김지하, 김현경, 박성희, 서태환, 이상영, 장민수, 조동환, 조태원, 홍정은
24회	강창주, 김정무, 박용석, 신용철, 안용태, 원경선, 이문성, 이영주, 임철빈, 홍용기	46회	이동훈
25회	권세형, 김미희, 김선열, 김형욱, 위성건, 이수영, 이영제, 한덕화	47회	김기돈, 김시우, 심현진, 이영이, 이주연
27회	김봉일, 김윤수, 김정수A, 나종우, 박병섭, 박주돈, 반수호, 손영득, 신현동, 오승주, 이순아, 이승목, 이종량, 정기춘, 진희억, 채규미, 최종배	48회	백주민
27회	김재식, 김창식, 문연숙, 양건모, 염승호, 유경무, 이무택, 이승목, 이연숙, 전명수, 정웅섭	49회	강령아, 김승준
		50회	박주현, 우종식
		51회	권세일, 박경태, 박병언
		52회	이보람
		53회	류미란, 박연주, 서은려, 정유경
		55회	심재선, 임경선
		58회	한주희
		61회	김명중, 양대형, 정주호
		62회	김의석, 박제혁, 조을
		63회	김세민, 이현택
		65회	박기현, 송우석, 전차희
		66회	박성현, 유현욱, 이가영, 이재은, 하문민, 홍순호

2023-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기금 수혜자



번호	장학기금명	장학기금액(원)	전공	성명
1	청호 손동헌장학기금	1,250,000	약학부	강민혁
2	김명섭장학기금	1,000,000	약학	강지원
3	손의동장학기금	1,500,000	제약학	천승희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지아
5	본동문회	1,250,000	약학부	김하경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희선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남윤우
8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문해일
9	본동문회	1,250,000	약학	변경원
10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서지은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12	본동문회	1,250,000	약학부	오동호
13	본동문회	1,250,000	제약학	이승훈
14	본동문회	1,500,000	약학부	이자연
15	본동문회	1,250,000	약학	이혜윤
16	본동문회	1,250,000	약학	장지운
17	본동문회	1,250,000	약학부	조우진
18	본동문회	1,500,000	약학부	최은비
19	여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창겸
20	26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박희용

번호	장학기금명	장학기금액(원)	전공	성명
21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송채린
22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곽준혁
23	28회 동기회	1,000,000	약학부	박정은
24	32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서동완
25	부산 동기회	1,000,000	약학부	조성근
26	강서 동기회	1,000,000	약학	서우재
27	약품물리	1,000,000	약학	김성용
28	약품물리	1,000,000	제약학	박지원
29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약학	김자윤
30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윤지희
3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민경
32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윤상
33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예리
34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조민경
35	칼라무스	800,000	약학	곽영준
36	칼라무스	800,000	제약학	권수연
37	칼라무스	800,000	약학	이유림
38	칼라무스	800,000	약학	조인영
39	칼라무스	800,000	약학	윤정빈
40	칼라무스	800,000	제약학	최희정

합 계		43,300,000		
-----	--	------------	--	--



단항(團勝)

검박한 내음은 높은 빛들로
너른를 묶는다..이여한 태풍에도
충을까지 압도록...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The man who views the world at fifty the same as he did at twenty has wasted thirty years of his life.

50이 되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스무살 때와 같다면 30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알리〉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세상에 예의와 염치가 없어진 시절을 살게 되는구나.

깡패나 동네 양아치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 '그 나름의 수준'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든 행동이든 무례와 몰염치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판치는 세태 앞에 평생을 속물로서 살아온 과거조차 부끄럽구나. 그림다, 고향별! (ghost@andromeda.uni)

임성호(36회)
편집위원

약학대학 개교 7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

강산이 일곱 번이나 바뀌는 장구한 세월 동안 8,389명의 동문들이 한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랑스러움에 더해 앞으로 7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약속을 기억하며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REJURAN[®]**



피부 속 세계,
리쥬란으로 채우다

 **파마리서치**

광고심의필:심의번호 조합 2023-31-031(유효기간 26.08.22)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조직수복생체재료, 성인의 인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capa21@hanafos.com